

明末清初 遺民의 기억, 서사, 그리고 《女範捷錄》

金芝鮮*

< 목 차 >

1. 들어가며
2. 王相의 《女四書》—朱熹의 《四書》를 오마주(hommage)하다
3. 《女範捷錄》, 변화하고 있는 규방의 풍경을 말하다
 - 3.1. 바깥을 향한 시선
 - 3.2. 죽음을 권장하는 목소리와 침묵하는 몸
 - 3.3. 규방 안에서 '忠'을 실현하다
4. 나가며

1. 들어가며

《女四書》 중 하나로 알려진 《女範捷錄》은 明末清初 劉氏가 쓴 여성 교육 서이다. 《女範捷錄》의 서문에 의하면 劉氏는 江寧(江蘇省 南京) 사람이고, 王集敬의 처로 30세에 과부가 되어 60년을 수절하며 90세까지 살았다고 한다.¹⁾ 《女範捷錄》은 모두 <統論篇>, <后德篇>, <母儀篇>, <孝行篇>, <貞烈篇>, <忠義篇>, <慈愛篇>, <秉禮篇>, <智慧篇>, <勤儉篇>, <才德篇> 총 11篇으로 구성되어있는데, 각 편의 서두와 마무리는 주제별로 유교의 道理와 婦德에 대해 설명하였고, 본 내용은 주로 역사적으로 실존하였

* 梨花女大 中國文化研究所 專任研究員

1) 劉氏의 아들 王相이 쓴 《女範捷錄》의 서문에 “나의 어머니 劉氏는 江寧 사람으로 어려서 부터 글을 잘 쓰셨는데 나의 아버지 集敬公에게 시집오셨다. 서른이 되어 아버지께서 돌아가시자 60년 동안 힘들게 절개를 지키셨고 90세의 수를 누리셨다.(先慈劉氏, 江寧人, 幼善屬文, 先嚴集敬公之元配也. 三十而先嚴卒, 苦節六十年, 壽九十歲.)”라는 문장이 보인다.

던 여성들의 행적들을 제시하였다. 하나의 사례를 묘사하는 데 7언~10언 사이로 매우 압축적으로 짧고 간결하게 표현하고 있어 “재빠르게 기록했다(捷錄)”는 제목의 의미가 이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서술의 특징 때문에 《女範捷錄》은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책으로 여겨졌다. 劉氏가 하나의 사례를 묘사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만 부각시켜 간결하게 표현하였기에 역사적 배경이나 典故에 해박하지 않은 독자들에게 《女範捷錄》은 마치 수수께끼를 푸는 것처럼 난해하게 다가온다. 《女誡》나 《女論語》, 《內訓》 등처럼 알기 쉽고 구체적으로 婦德의 도리와 실천을 설명한 것이 아니기에 이는 《女四書》 중에서 《女範捷錄》이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았던 원인으로 해석된다. 《女四書》가 1835년 일본에서 《女四書芸文圖繪》로 간행될 때, 《女範捷錄》 대신 鄭氏의 《女孝經》이 들어간 사실만 보더라도 《女範捷錄》은 내용이나 서술방식 등에서 《女誡》, 《女論語》, 《內訓》과는 상당히 다른 면이 있으며, 누구에게나 쉽게 이해되고 광범위하게 수용되기 어려운 여성 교육서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²⁾

그럼에도 《女範捷錄》은 劉氏의 아들 王相에 의해 친절한 주석이 곁들여지고, 《女誡》, 《女論語》, 《內訓》과 함께 《閨閣女四書》로 간행되어 동아시아 전체로 널리 전파되면서 권위 있는 여성교육서로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王相이 왜 《女誡》, 《女論語》, 《內訓》을 연결시키고 거기에 색깔이 전혀 다른 《女範捷錄》을 함께 엮어 《女四書》로 간행하였는지 그 의도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거기에는 분명 단순히 어머니 劉氏를 추모하고, 아들로써 효성을 다하고자 하였던 것 이상의 의도가 담겨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王相은 《女誡》, 《女論語》, 《內訓》이 明末清初라는 격동의 세월을 지나면서 변화하기 시작한 여성관과 여성교육에 교재로서 부족

2) 《女四書》가 일본에 처음 받아들여진 것은 1656년 스지하라 모토스케에 의해 번안된 가나조시 《女四書》이지만 그 후 1835년 이것을 일본풍으로 번안된 《女四書芸文圖繪》에는 《女範捷錄》이 빠지고 《女孝經》이 들어갔다. 《女四書》의 일본 수용과정에 대한 논의는 박찬기, <《女四書芸文圖繪》의 번각과 《여훈물》 연구> (《日本語文學》 제39집, 2008)를 참조.

한 부분이 있음을 느꼈고, 이를 보충하기 위해 《女範捷錄》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던 것이다.

이민족의 침략과 한족 왕조의 몰락을 지켜보아야하였던 劉氏는 시대에 대한 통탄을 《女範捷錄》에 담아내고자 노력하였고, 60년의 세월 동안 수절하였던 劉氏의 매서움은 《女範捷錄》 전체에 스며들었다. 그리고 劉氏의 뜻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던 아들 王相은 《女範捷錄》에 주석을 달아 원문에서 잘 드러나지 않았던 의미들을 밝히고, 주석이라는 공간을 통해 다시 遺民으로서의 기억과 남성 문인으로서의 시선을 끊임없이 투영시켰다. 그 결과 《女範捷錄》은 작품 전체에서 죽음과 폭력의 그림자를 드리우며 신체 일부를 잘라서라도 부모를 봉양하고, 목숨을 바쳐 남편에 대한 절개를 지키며, 남성이 안 되면 여성이라도 나서서 나라에 대해 충성을 바치라고 외치고 있다. 이러한 吶喊은 전쟁의 흔적으로 이미 변화하고 있던 당시 규방의 풍경을 그대로 비춰주는 거울이 되었고, 이로써 우리는 《女範捷錄》을 통해 明末清初 여성들의 강박적 심리와 시대적 정서를 읽을 수 있다.

2. 王相의 《女四書》—朱熹의 《四書》를 오마주(hommage)하다

王相의 자는 晉升이고, 江西 臨川 사람으로 康熙年間(1654~1722) 전후로 생존한 것으로 알려지나 생애에 대해 고증할 수 있는 자료가 전해지지 않는다. 《千家詩》, 《三字經》, 《百家姓》 등에 주석 작업을 하였고, 《女誠》, 《女論語》, 《內訓》, 《女範捷錄》에 주석을 달고 이를 《女四書》로 판각하였다는 사실만 알려져 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의심스러운 점은 “王相이 당시 수많은 여성 교육서 중에서 왜 《女誠》, 《女論語》, 《內訓》, 《女範捷錄》이 네 책을 선택하여 箋註하였는가?”이다. 아들이 어머니를 위해 그 작품들을

정리하여 판각하는 것은 明代 이후 江南에서 그리 특별한 일은 아니었으나, 王相이 《女範捷錄》 외에도 《女誠》, 《女論語》, 《內訓》을 선택하여 주석을 달고 이를 《女四書》라는 제목으로 판각한 데에는 나름의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王相이 엮은 《女四書》의 체제를 살펴보면 漢代的 《女誠》가 제일 먼저 나오고, 바로 다음에 明代의 《內訓》이 배열되었다. 그리고 唐代的 《女論語》, 明末清初의 《女範捷錄》 순으로 배열되어 있는데, 보통 시대적 순서로 배열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 이는 王相 개인의 발상이라기보다 明代 神宗(1563~1620)이 《女誠》와 《內訓》을 한 권으로 엮어 국가 공식 여성 교육서로 간행하였던 것을 우선적으로 따른 것이다. 神宗이 쓴 <神宗皇帝御製女誠序>에 의하면, 神宗은 궁궐에서 保姆와 傅姆를 모아놓고 《女誠》와 《內訓》을 강론하도록 하였고,³⁾ “복사본을 만들어 서울과 지방에 널리 내포하여 서민의 가정에게도 딸을 가르치는 內敎의 자료가 되게 하였다.”⁴⁾ 《女誠》와 《內訓》은 이미 당시 神宗의 후원 하에 하나의 책으로 묶여져 여성교육서로서 크게 중시되고 있었고, 王相은 이 체제를 그대로 수용하였다.

먼저 《女四書》 중 東漢 班昭가 쓴 《女誠》의 체제를 살펴보면, <卑弱>, <夫婦>, <敬慎>, <婦行>, <專心>, <曲從>, <和叔妹> 등 총 7편으로 구성되어있는데, 결혼한 여성이 남편을 잘 섬기고, 시부모를 잘 모시며, 시댁의 형제자매들과 화목하게 잘 지내기를 가르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班昭가 서문에서 “전전궁궁하며 쫓겨나서 부모에게 치욕을 드릴까, 시댁과 친정에 누를 끼칠까 항상 두려워하였다.”⁵⁾라고 하면서, 첫 번째 장을 <卑弱>으로 설정하였던 것에서 우리는 《漢書》를 완성한 ‘대학자’가 아니라 ‘주부’로서의 班昭의 삶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서문에서 班昭는 딸을 시집보내기 전에 가

3) <神宗皇帝御製女誠序>에 “이에 《女誠》와 仁孝文皇后의 《內訓》 두 책을 여러 保姆와 傅姆로 하여금 아침저녁으로 궁궐에서 강론토록 하였다.(暨仁孝文皇后內訓二書, 俾諸保姆, 朝夕進講于宮闈.)”라는 문장이 보인다.

4) <神宗皇帝御製女誠序>: 仍鑤其副本, 頒示中外, 使民庶之家, 得以訓誨女子, 有資闈敎.

5) <女誠原序>: 戰戰兢兢, 常懼出辱, 以增父母之羞, 以益中外之累.

르치기 위해 《女誠》를 썼음을 밝혔는데, 《女誠》에서는 적어도 여성이 여성의 삶을 애뜻함과 안타까움으로 바라보며 가르치려는 시선을 느낄 수 있다.

《女誠》가 귀족 가문에서 서민 가정에 이르기까지 실제 생활에서 여성이 지켜야할 四德에 대해 쓴 책이라면, 《內訓》은 仁孝文皇后가 황실의 여성을 교육하기 위해 쓴 책이다. 仁孝文皇后는 《女誠》가 너무 간략한 것이 흠이라고 지적하면서,⁶⁾ 《內訓》을 <德性>, <修身>, <慎言>, <謹行>, <勤勵>, <節儉>, <警戒>, <積善>, <遷善>, <崇聖訓>, <景賢範>, <事父母>, <事君>, <事舅姑>, <奉祭祀>, <母儀>, <睦親>, <慈幼>, <逮下>, <待外戚> 등 총 20장으로 구성하여 상당히 포괄적이면서 광범위하게 여성이 지켜야할 도리를 설명하였다. 물론 《內訓》은 여전히 《女誠》의 입장을 계승하였지만, 그럼에도 仁孝文皇后가 새롭게 여성 교육서를 쓴 것에는 漢代에 쓰인 《女誠》가 明代 여성을 교육하는 데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음을 암시한다.⁷⁾

즉 班昭가 딸을 가르치기 위한 개인적인 동기에서 여성의 예절과 도리를 썼다면, 仁孝文皇后는 보다 체계적인 사상의 기반에 입각하여 궁궐의 여성에서 하층의 여성에 이르기까지 전체의 內治를 이룰 수 있는 틀을 만들고자 하였다. 이 때문에 班昭가 《女誠》의 첫 번째 장 <卑弱>에서 陰陽尊卑論에 의거해 여성이 아랫사람으로 자처해야함을 강조한 것과 달리, 仁孝文皇后는 《內訓》의 첫 번째 장 <德行>에서 여성이 남성에게 순종해야하는 근거를 성리학적 기반에 두고 설명하였다. 즉 여성의 교화를 도덕적 본성, 修身의 문제와 연결하였는데, '선한' 여성으로의 교화는 바로 內治의 시작이자 국가와 사회 전체의 질서를 정비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6) 《內訓》의 서문에 “유독 여성 교육에서 온전한 책이 없었고, 세간에서는 范曄의 《後漢書》와 曹大家의 《女誠》를 교본으로 삼았으나 항상 그 간략함이 흠이었다.(獨女教未有全書, 世惟取范曄《後漢書》, 曹大家《女誠》爲訓, 恆病其略.)”라는 문장이 보인다.

7) 김훈식은 仁孝文皇后가 《女誠》에 대해 간략하다고 한 것은 단순히 양적인 부분에서 부족함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내용상의 부족함을 가리킨다고 하면서, 15세기 중국에서 나온 《內訓》은 《女誠》의 내용을 받아들이면서도 그것과는 다른 새로운 윤리사상과 도덕규범, 德性論과 節義論을 담고 있는 차별성을 가진다고 논의하였다. <15세기 韓·中 《內訓》의 여성윤리>, 《역사와 경계》79, 2011, 81쪽.

그렇다면 王相은 그 다음으로 왜 《女論語》라는 책을 《女四書》에 포함시켰는지가 궁금해진다. 唐代 宋若莘, 宋若昭 자매가 쓴 《女論語》는 <立身>, <學作>, <學禮>, <早起>, <事父母>, <事舅姑>, <事夫>, <訓男女>, <營家>, <待客>, <柔和>, <守節> 등 총 12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눈길을 끄는 점은 《女論語》가 제목이 주는 무게감만큼 철학적으로 심오하지도 않고, 《女誡》처럼 조심스럽고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여성의 삶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女論語》가 가르치는 여성 교육은 유쾌하고 가볍기까지 하다. 《女論語》는 유가적인 수양이 아니라 여성의 몸가짐과 걸음걸이, 말씨, 웃음, 시선의 처리 등의 교양이나 재산을 불리는 법, 음식 하는 법, 청소하는 법, 농사하는 법 등 여성이 사랑받고 살림을 잘 하며 여성으로서 행복하게 사는 방법들을 가르치고 있다.⁸⁾

이처럼 《女論語》에는 여성에 대한 속박보다는 자유분방함이 느껴지고, 사상적인 면에서도 《論語》나 성리학적 이념과 전혀 상통하는 점을 찾아볼 수 없다. 그렇기에 王相이 《女四書》를 구성, 편집하는 데 理學의 가르침과 그다지 상관없어 보이는 《女論語》를 굳이 넣은 데에 의아심이 든다. 唐宋이라는 시대적 안배를 생각했다고 하더라도, 唐代만 하여도 《女論語》 외에 長孫皇后의 《女則要錄》, 武則天的 《鳳樓新誡》, 侯莫陳邈의 처 鄭氏의 《女孝經》 등 다양한 여성 교육서들이 있었는데, 王相이 그 중에서 왜 《女論語》를 선택하였는지 그 이유를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는 《女論語》라는 제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원래 《女論語》도 《論語》의 내용보다는 問答體라는 '형식'을 모방함으로써 여성 교육서로서의 권위를 얻었는데,⁹⁾ 《女

8) 이숙인은 《女論語》의 내용이 서민 가정의 여성을 향하고 있고, 직접 그 환경 속에 살아 보지 않고는 파악할 수 없는 상황들이 아주 상세하게 서술되어있기에, 결혼도 하지 않았고, 궁중에서 황후 이하 여성들의 교사로 지냈던 宋若莘, 宋若昭 자매가 《女論語》를 썼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다고 보았다. 《女四書》, 이숙인 역주, 여이연, 2003, 363쪽.

9) 《舊唐書·后妃傳(下)》에 “[宋若昭가] 《女論語》 10편을 썼는데 그 말은 《論語》를 모방하여 仲尼를 韋逞母 宣文君 宋氏로, 顏回와 閔子騫를 曹大家 등으로 대체하여 그 사이에서 오간 문답을 쓴 것으로 모두 婦道에서 숭상하는 바였다.(著《女論語》十篇, 其言模仿《論語》, 以韋逞母宣文君宋氏代仲尼, 以曹大家等代顏、閔, 其間問答, 悉以婦道所向.)”라는 문장이 보인다.

《四書》를 구성하고자 하였던 王相에게 《女論語》는 그것이 담고 있는 내용보다 ‘論語’라는 제목과 경전으로서의 《論語》의 권위 때문에 필요하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서로 개연성 없는 《女誠》, 《女論語》, 《內訓》, 《女範捷錄》 네 여성 교육서를 묶어 《女四書》를 판각한 王相은 《論語》, 《孟子》, 《大學》, 《中庸》에 注釋을 달고 이를 엮어 《四書集註》로 내었던 南宋 朱熹를 오마주(hommage)하고자 것은 아닐까. 더욱이 朱熹가 金이라는 이민족의 압박에 의해 한족의 왕조가 한 차례 몰락을 겪은 南宋의 문인이었고, 王相은 明代 遺民의 기억을 안고 있는 清初의 문인이라는 유사성이 이 추론을 더욱 밀받침해준다. 그렇게 볼 때, 우리는 《女四書》가 과연 실질적으로 여성의 삶의 질을 높이고, 여성에게 필요한 교육을 담은 책이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女四書》가 모두 여성이 직접 쓴 교육서를 엮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이를 배열하고, 편집하고, 주석을 다는 과정에서 결국 王相이라는 남성 문인의 시선이 개입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가장 잘 대변해주는 문제가 바로 《女四書》에 ‘태교’에 대한 언급이 빠져 있는 것이다. 태교는 여성의 삶에서 너무도 중요한 문제이고, 王相 역시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은 아닐 텐데, 王相은 ‘태교’를 포기한 대신 그 자리에 나라에 대한 ‘충성’이라는 주제를 넣었다. 이로써 여성교육의 패러다임은 ‘孝’와 ‘烈’ 중심에서 ‘孝’, ‘烈’, ‘忠’으로 확장되기에 이르고, 《女範捷錄》은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있었다. 스스로 明末清初의 ‘朱熹’가 된 王相은 劉氏가 수수께끼처럼 숨기듯 쓴 행간의 의미들을 주석이라는 공간을 통해 드라마틱하게 풀어내었고, 어머니의 ‘기억’과 아들의 ‘서사’는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듯 균형을 이루며 《女範捷錄》 안에서 조화롭게 공존하고 있다. 그리고 《女範捷錄》이 《女四書》로서의 권위를 얻어가면서 규방 안의 풍경도 점차 변화하고 있었다.

3. 《女範捷錄》， 변화하고 있는 규방의 풍경을 말하다

3.1. 바깥을 향한 시선

일찍이 《禮記·內則》에서 “남자는 집안의 일을 말하지 않고, 여자는 밖의 일을 말하지 않는다.”¹⁰⁾라고 하였으니, 이로부터 유교에서 ‘안’과 ‘밖’의 경계는 명확하게 구분되었고, 여성의 역할은 규방의 문지방을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규정되었다. 이는 《女誡》, 《女論語》, 《內訓》을 필두로 거의 모든 여성 교육서를 관통하는 사유였고, 《女範捷錄》 역시 이를 그대로 수용하였다. 《女範捷錄》의 내용 전체를 개괄하는 <統論篇>에서 劉氏는 “남자는 밖을 바로 잡고, 여자는 안을 바로 잡으니 부부는 만물의 조화의 시작을 만든다.”¹¹⁾라고 하면서, 여성의 영역은 ‘안’임을 분명히 밝혔다.

그럼에도 劉氏가 “여자를 가르치는 도는 남자보다 더 중요하고, 안을 바로 잡는 규범은 당연히 바깥보다 우선이다.”¹²⁾라고 하면서 여성교육을 독려한 언급에서 우리는 明代 이후로 변화하기 시작한 여성관과 여성 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엿볼 수 있다. 그런데 劉氏가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여성교육은 기존의 여성교육과는 사뭇 달라 보인다. ‘안’의 영역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女範捷錄》에는 부모, 친척을 모시거나 자식을 교육하는 일, 손님을 접대하거나 제사를 지내는 일 등 여성들이 규방에서 겪는 ‘일상’에 대한 언급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劉氏가 염두에 두었던 여성교육의 내용에서 ‘집안일’은 그리 중요한 사안이 아니었다.

그 대신 劉氏는 여성들에게 ‘안’의 영역은 굳건히 지키되 시선은 ‘바깥’을 향하라고 말하고 있다. 《女範捷錄》의 첫 번째 장 <統論篇>에 이어 두 번째

10) 《禮記·內則》: 男不言內, 女不言外.

11) 《女範捷錄·統論篇》: 男正乎外, 女正乎內, 夫婦造萬化之端.

12) 《女範捷錄·統論篇》: 教女之道, 猶甚於男, 而正內之儀, 宜先乎外也.

장은 <后德篇>인데, 內治의 정점이자 시작인 후비의 모범을 가장 먼저 제시함으로써 모든 계층의 여성들을 가르치는 규범을 정립하고자 한 작자의 의도가 돋보인다. <后德篇>은 黃帝의 세 후비 姜嫄, 簡狄, 慶都에서 明代의 孝慈皇后 馬氏와 仁孝文皇后 徐氏에 이르기까지 내조를 잘 한 후비들을 모범으로 제시하였는데,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후비의 ‘간언’에 대한 칭송이다.

“周나라 宣王은 늦게 일어나 조정에 나갔으니 姜后가 待罪하며 간언하였다.”¹³⁾
 “高祖와 太宗은 唐나라를 일으켰으니 안에서는 竇皇后와 長孫皇后의 내조가 있었다.”¹⁴⁾

“明나라 高帝는 초야에서 큰 은혜를 베풀었으니 실로 孝慈皇后에 기댄 것이다.”¹⁵⁾

姜后의 이야기는 劉向의 《列女傳·賢明傳》에 수록되어있는 것으로 姜后의 간언으로 周나라 宣王이 정사에 열중하였고 이로부터 周나라가 번창하게 되었다는 내용은 익히 알려진 바다. <后德篇>에는 또 竇皇后와 長孫皇后, 孝慈皇后의 내조를 칭송하였는데, 원문에서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王相의 주석에서 長孫皇后는 “매우 현명하여 태종에게 매번 간언을 하였고 태종도 역시 황후의 간언을 받아들였다.”¹⁶⁾라고 되어있고, 孝慈皇后는 “高帝와 함께 초야에서 기거하며 백성들의 어려움을 직접 체험하였고, 늘 高帝에게 근검절약하고 백성들을 아끼라고 간언하였다.”¹⁷⁾라고 되어있다. 劉氏와 王相의 시선에서 이들의 훌륭한 내조는 바로 황제와 올바른 정치를 위한 ‘간언’에 있었다.

이는 明代 초기 仁孝文皇后가 《內訓》에서 강조한 내조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仁孝文皇后는 《內訓·愼言》에서 “총애를 함부로 하여 은혜에 기대지 말고 정치에 간여하여 법도를 어지럽히지 말라.”¹⁸⁾고 하면서, 女禍의 근원을 ‘음’에 두었고, 여성이 정치에 간여하는 것을 큰 죄악으로 여겼다. 하지만 劉氏

13) 《女範捷錄·后德篇》: 宣王晩朝, 姜后有待罪之諫.

14) 《女範捷錄·后德篇》: 高文興唐, 內有竇孫之助.

15) 《女範捷錄·后德篇》: 高帝創洪於草莽, 實藉孝慈.

16) 《女範捷錄·后德篇》 箋註: 尤賢, 每事盡其規諫, 太宗嘉納之.

17) 《女範捷錄·后德篇》 箋註: 與帝同起草野, 知百姓之艱難, 規諫太祖, 勤儉愛民寬.

18) 《內訓·事君》: 毋擅寵而怙恩, 毋干政而撓法.

는 이와는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劉氏는 직접 정치에 간여하고 활약한 후비들을 칭송하는 과감한 입장을 보인다. 宋나라 英宗의 宣仁太后에 대해 “여인 중 堯舜이라 이를 만하다.”¹⁹⁾라고 칭송하였는데, 王相은 이에 대해 “손자 哲宗을 옹위하여 수렴청정을 하였다. 현명한 인재를 등용하고 정치의 폐단을 바로 잡아 역사에서 女中堯舜으로 칭해진다.”²⁰⁾라고 주석을 달았다. 이른바 《書經·牧誓》에서 “암탉은 새벽에 울지 않는데, 암탉이 새벽에 울면 집안이 망한다.”²¹⁾라고 경계하였던 금기는 明末清初에 이르러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여성이 바깥일에 관심을 갖고 남성의 영역인 ‘정치’에 관여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한 劉氏와 王相의 의도는 과연 여성들에게 주체적이면서 능동적인 삶을 요구하는 데 있었을까? 여기에는 물론 사회와 국가 질서를 회복하는 데 여성을 주체로 세워 그 긍정적인 힘을 인정하고 이끌어내는 효과도 있다. 하지만 ‘婦言’에 대한 관대함은 궁극적으로 여성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성을 보좌하고 外治에 도움이 되는 상황에서만 허용되는 것이었다. 이는 劉向이 《列女傳·辯通傳》에서 여성의 논리 정연한 언변과 지혜를 칭송하면서도 그 능력을 여성 자신이나 혹은 어머니, 언니 등 다른 여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들, 남편, 아버지의 위기를 구하는 데 한정시켰던 한계²²⁾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더욱이 《女範捷錄·母儀篇》에서 칭송되고 있는 어머니들은 남편과 시댁의 눈치를 보면서 전전긍긍하며 딸을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라 온갖 희생을 다해 아들을 가르치고 그 失政을 나무라고 꾸짖는다. 혹은 몸은 규방 안에 앉아 있지만 미래의 정세를 훤히 꿰뚫어보기도 하고, 병풍 뒤에서 몸을 숨기고 있지만 몰래 엿보며 시선은 늘 밖을 향하고 있다.

19) 《女範捷錄·后德篇》: 暨夫宋室之宣仁, 可謂女中之堯舜.

20) 《女範捷錄·后德篇》 箋註: 擁孫哲宗, 垂簾聽政, 任賢不貳, 去讒不疑, 盡除弊政, 史稱女中堯舜.

21) 《書經·牧誓》: 牝雞無晨, 牝雞之晨, 惟家之索.

22) 김종미, <窈窕淑女, 君자의 이름으로 부르는 여인>, 《동아시아 여성의 기원—《列女傳》에 대한 여성학적 탐구>, 이화중국여성문학연구회 편, 이화여대출판부, 2002, 192쪽.

陶侃의 어머니는 머리카락을 잘라 손님을 머물게 하여 아들의 뜻이 원대함을 알았고, 房玄齡의 어머니는 병풍을 사이에 두고 손님을 엿보아 아들의 벗이 범상치 않음을 알았다.²³⁾

쑤나라 陶侃의 어머니는 아들의 친구들이 집으로 찾아왔는데 그들이 훗날 큰 인물이 될 것임을 미리 알아보고 어려운 형편에 대접할 것이 없어 머리카락을 잘라 팔아서 대접하였다. 唐나라 房玄齡의 어머니는 杜如晦, 薛元敬 등 아들의 친구들이 찾아왔을 때, 병풍 뒤에서 엿보면서 그들이 재상의 그릇을 타고 났음을 일찌감치 알아보았다. 이들의 이야기가 <母儀篇>이 아니라 <智慧篇>에 수록되어있는 점이 독특한데, <智慧篇>에서 劉氏가 강조하고 있는 여성의 지혜란 살림을 잘 꾸리는 것이 아니라 바깥세상의 정세를 읽고 이로써 아들이나 남편의 정치에 도움을 주는 것을 가리킨다.

더 나아가 劉氏는 <才德篇>에서 재주를 지닌 여성들을 칭송하였는데, “여자에게 재주가 없는 것이 곧 덕이다.(女子無才便是德)”라고 한 전통적인 여성관에서 크게 진일보한 입장을 보이지만, 이 때 劉氏가 강조한 여성의 재주란 단순히 책을 읽고, 시를 지을 수 있는 재주를 가리키지 않는다. 《女範捷錄·才德篇》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보인다.

“남자에게 덕이 있는 것이 곧 재주다.”는 이 말은 오히려 옳지만 “여자에게 재주가 없는 것이 곧 덕이다.”는 이 말은 매우 틀리다. 무릇 才德의 원칙을 알지 못하면 어긋남과 바름에 대한 논쟁을 더하게 된다. 덕은 재주로 통달하게 되고 재주는 덕으로 이루어진다. 이 때문에 여자가 덕이 있으면 진실로 반드시 재주가 있을 필요가 없지만 재주가 있으면 분명 덕이 있는 것보다 낫다. 덕은 근본이고 재주는 끝인 것은 원래 당연한 이치지만 선하지 않는 것은 재주의 잘못이 아니다. 이 때문에 經世濟民의 재주는 부인의 말에서 오히려 쓰일 수 있지만 바르지 않은 기예는 남자 역시 마땅히 해서는 안 된다.²⁴⁾

23) 《女範捷錄·智慧篇》: 剪髮留賓, 知吾兒之志大, 隔屏窺客, 識子女之不凡.

24) 《女範捷錄·才德篇》: 男子有德便是才, 斯言猶可, 女子無才便是德, 此語殊非. 蓋不知才德之經, 與邪正之辯也. 夫德以達才, 才以成德. 故女子之有德者, 固不必有才, 而有才者, 必貴乎有德. 德本而才末, 固理之宜然, 若夫爲不善, 非才之罪也. 故經濟之才, 婦言猶可用, 而邪僻之藝, 男子亦非宜.

결국 여성의 재주에 대한 劉氏의 긍정은 ‘經世濟民’, 즉 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을 구제하기 위한 것에 있었지 여성의 삶의 질을 높이거나 성취감을 얻게 하는 데 있지 않았다. 전쟁과 나라의 위기라는 상황에서 劉氏에게 ‘내조’는 분명 기존의 교육서와는 다른 내용으로 구성되어야만 하였다. 격동의 시기에 여성은 규방이라는 공간에 유폐되어 집안일에만 전념할 것이 아니라 몸은 ‘안’에 머물지만 시선은 ‘밖’을 향하기를 요구한 것이다. 그것은 바로 나라가 망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남성이 안 되면 여성이라도 직접 나서서 무엇이든 해내라고 소리치고 다그치는 목소리이기도 하다. 그러나 시선을 바깥으로 향하라고 외치는 소리에 여성들은 그리 행복하지 않았을 것 같다. 힘든 가사노동에 시달리면서 經世濟民을 위한 노력까지 해야 하는 여성들은 너무도 고달프게 자신을 채찍질하며 살아가야만 했기 때문이다.

3.2. 죽음을 권장하는 목소리와 침묵하는 몸

亡國의 기억을 안고 살아남은 明代 遺民들에게 가장 중요한 화두는 단연 ‘죽음’이었다. 그들에게 죽음은 더 이상 두려운 글자가 아니었고, 죽음에 있어서도 그 죽음이 과연 ‘大義’를 위한 것인지를 평가하고, 이에 대해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하려는 노력들이 나타났다.²⁵⁾ 특히 江南이 전란의 중심지가 되면서 江南 여성들의 殉節은 明代 여성의 자살에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였는데, 遺民들은 죽음 중에서도 ‘殉節’을 가장 고결한 죽음으로 평가하고 殉節한 江南 여성들을 칭송하기 시작하였다. 殉節한 여성들의 이야기를 수집하고, 기록하여 칭송하는 작업이 궁극적으로 변절한 남성들을 비판하는 계기가 되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²⁶⁾

25) 馬將偉는 明代 遺民의 글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표현 중 하나가 ‘偷活’이었고, 죽음을 세부화하여 그 중에서도 殉節을 가장 고귀한 죽음으로 평가하였다고 지적하였다. <歷史隱喻中的生命探求—生死之議與明遺民的生存抉擇>, 《海南大學學報》 第28卷 第2期, 2010年 4月, 101~102쪽.

《女範捷錄》에서 殉節의 모범은 <后德篇>부터 시작한다. 이는 황실 여성을 대상으로 쓴 《內訓》에서 再嫁의 금지나 수절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것과 대조를 이룬다. 여기에는 황실의 여성들에게 再嫁를 거론하거나 절개를 지키기 위해 자살하라고 권장할 수 없다는 인식이 투영되어있다.²⁷⁾ 이에 비해 劉氏는 <后德篇>에서 가장 먼저 후비의 殉節부터 칭송하였는데, 이로써 귀족에서 평민, 노비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층의 여성들이 殉節한 후비를 모범으로 삼고 배우기를 가르치고 있다.

“楚나라 昭王이 죽자 越姬는 왕을 따라 죽겠다고 마음으로 맹세하였던 말을 실천하였다.”²⁸⁾

“烏林 答氏는 金나라 世宗에게 절개를 다 하였다.”²⁹⁾

여기에서 ‘임금’에 대한 후비의 殉節은 바로 ‘나라’에 대한 殉節의 상징으로 작용하고, 劉氏는 후비의 의로운 죽음을 칭송하면서 明代에 대한 절개를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죽을 것인가는 遺民들에게 중요한 문제였고, 그것은 ‘大義’이자 ‘명분’이 되어 殉節을 칭송하는 근거가 되었다. ‘임금’과 ‘나라’에 대한 殉節은 다시 ‘부모’와 ‘남편’에 대한 殉節과 연결되면서 그것이 대의와 명분을 위한 것이라면 바로 칭송의 대상이 되었다.

이로부터 《女範捷錄》의 <孝行篇>, <貞烈篇> 등에서는 ‘孝’와 ‘烈’이라는 덕목 하에 남편을 대신해서 죽거나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신체를 傷害하는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칭송되고 있다. 그런데 후비의 殉節이 ‘義’를 위한 숭고한 행위로 아름답게 포장되었다면, 하층 여성들의 경우로 내려가면서 그들의 죽

26) 沈雪瑩, <死節: 明清之際江南女性的抉擇及其原因分析>, 《金陵科技學院學報》第22卷 第2期, 2008年 6月, 75쪽.

27) 이와 비슷한 상황은 조선시기 《三綱行實圖》의 刪定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烈女傳>의 경우, 110편에서 35편으로 축약되면서 伯姬의 사례만 남고 왕후, 계후, 대부의 아내들의 이야기는 제외되었는데, 여기에는 황실의 여성과 일반 여성을 동등하게 다룰 수 없다는 의미가 함축되어있다. 이혜순, <열녀상의 전통과 변모—《삼강행실도》에서 조선 후기 <열녀전>까지—, 《진단학보》 제85집, 1998, 165쪽.

28) 《女範捷錄·后德篇》: 楚昭宴駕, 越姬踐心許之言.

29) 《女範捷錄·后德篇》: 烏林盡節於世宗.

음은 더 극적이고 비참하게, 傷害는 더 고통스럽게 그려진다.

“潘妙圓은 남편을 따라 불에 뛰어들어 殉節하면서 그 시아버지의 목숨을 살렸다.”³⁰⁾

“崔氏는 쏟아지는 화살을 달게 받아 절개를 온전히 하였고, 劉氏는 남편 대신 술에서 삶겨져 남편을 살렸다.”³¹⁾

죽은 남편을 따라 불에 뛰어들고, 남편 대신 화살을 맞거나 끓는 술에 들어가 적군의 먹잇감이 되면서도 기꺼이 절개를 지키고자한 여성의 죽음은 처참하고 엽기적이기까지 하다. 이들에 대한 칭송에서 劉氏와 王相의, 더 넓게는 明末清初라는 시대 전체의 강박증이 느껴지기도 한다. 이 때 남편에 대한 殉節이 대부분 전쟁의 상황에서 이루어졌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쟁과 적군, 도적의 위협이라는 급박한 상황에서 삶에 대한 욕구나 갈등, 고뇌를 느끼지 않고 몸을 던지는 여성을 칭송함으로써 《女範捷錄》은 여성들이 이러한 경우를 당하여 즉시적으로 스스로를 희생하기를 가르치고 있다.

劉氏는 <貞烈篇>의 서두에서 “이 때문에 힘들고 어렵게 절개를 지키는 것을 ‘貞’이라 하고, 慷慨하여 생명을 버리는 것을 ‘烈’이라고 한다.”³²⁾라고 하면서, 최대한 힘들고 고통스럽게 절개를 지키고 목숨을 바쳐야 비로소 여성의 미덕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한다. 수절한 삶에 대한 일종의 보상심리 혹은 절개와 순결에 대한 劉氏의 강박증은 이제 죽음보다 더 잔인하게 자신을 확대하는 여성을 칭송하기에 이른다.

“夏侯송의 딸은 코를 베고 귀를 베어서 몸을 지켰고, 王凝의 처는 팔과 손을 당겨 잘라서 뜻을 밝혔다.”³³⁾

“史氏는 얼굴에 글자를 새겨 마음을 바꾸지 않았다.”³⁴⁾

30) 《女範捷錄·貞烈篇》: 潘妙圓從夫於火以殉節, 而活其舅之生.

31) 《女範捷錄·貞烈篇》: 崔氏甘亂箭以全節, 劉氏代鼎烹而活夫.

32) 《女範捷錄·貞烈篇》: 是故艱難苦節謂之貞, 慷慨捐生謂之烈.

33) 《女範捷錄·貞烈篇》: 令女截耳削鼻以持身, 凝妻牽臂掌以明志.

34) 《女範捷錄·貞烈篇》: 史氏刺面之文, 中心不改.

再嫁하라는 말 한 마디에 코와 귀를 자르고, 외간 남자에게 손목을 한 번 잡혔다고 자신의 손을 잘라내며, 수절을 위해 얼굴에 계속 상처를 내고 글자를 새겨 넣는 강박증과 집요함은 劉氏와 王相에게 잔인함의 표현이 아니라 아름다운 閨範이 되었다. 그리고 신체를 스스로 傷害하고 폭력을 가하면서도 두려워하거나 고통스럽게 느끼지 않는 ‘감정의 과잉’은 <孝行篇>에서도 여전히 이어진다. <孝行篇>에는 부모를 잘 봉양하였다거나 부모의 상을 성실하게 치른 경우보다는 범이나 적의 위협이 있는 순간 부모를 대신하여 죽거나, 부모의 병이 위독할 때 신체 일부를 잘라내어 부모를 봉양한 사례들이 주로 칭송되었다. 그들은 효를 위해서라면 斷指, 割股 뿐 아니라 간을 잘라내는 극단적인 수단도 마다하지 않는다.

“劉氏는 시어머니의 구더기를 먹고 팔을 찌르고 손가락을 잘라 피를 섞어 환약을 만들었다.”³⁵⁾

“張二娘은 간을 갈라서 할머니의 목숨을 소생시켰다.”³⁶⁾

시어머니의 상처에 난 구더기를 먹고 팔과 손가락을 잘라 피를 섞어 환약을 만들면서도 劉氏는 그저 묵묵히 효를 행할 뿐이다. 이 외에도 시어머니가 눈병이 나자 눈을 혀로 핥아서 병을 낫게 하였다는 閨氏, 연로하여 치아가 없는 시 할머니에게 젖을 물려 봉양한 唐氏 등 효에 대한 의무감 앞에서 여성들의 ‘몸’은 고통 속에서 그저 침묵하고 있다. 劉氏는 이들을 묘사하면서 고통이나 번민 등에 대한 심리는 표현하지 않았고, 그래서인지 《女範捷錄》에서는 ‘哭’, ‘淚’, ‘痛’, ‘苦’ 등의 글자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 <貞烈篇>에서 范杞良의 처 姜氏가 남편의 유골을 찾을 수 없어 통곡하는 것과 王凝의 처 李氏가 외간 남자에게 손목을 잡혔을 때 통곡하였던 것은 자신의 ‘고통’에 대한 울음이 아니라 ‘貞烈’을 지킬 수 없음에 대한 자책의 통곡이었다.

더욱이 자신의 간을 잘라서 할머니의 목숨을 소생시킨 張二娘의 이야기는

35) 《女範捷錄·孝行篇》: 劉氏齧姑之蛆, 刺臂斬指, 和血以丸藥.

36) 《女範捷錄·孝行篇》: 張女割肝, 以蘇祖母之命.

가히 충격적으로 다가온다. 심지어 주석에서 王相이 전하는 뒷이야기는 더욱 놀랍고 충격적이다. “가로로 가슴을 갈랐으나 간이 베어지지 않아 세로로 가슴을 갈라서 비로소 간을 베어내어 삶아서 할머니께 올린”³⁷⁾ 張二娘의 ‘과장된’ 행위에서 효에 대한 의무감 때문에 강박증에 시달리는 여성의 모습이 보인다. <孝行篇>의 마지막 구절은 “이 모든 것은 하늘과 땅이 감동하여 신명이 일시에孝烈을 드러내었고 천년 동안 아름다운 이름을 전하였으니 힘쓸 만하지 않은가!”³⁸⁾로 끝맺고 있다. 이렇듯 항간에게 떠도는 자극적이고 비현실적인 이야기들을 수집하여 ‘孝’와 ‘烈’을 권장하려는 노력은 明末清初 문인들의 보편적인 정서를 대변해주는 것이기도 하였다.

《明史·列女傳》에는 “근래의 분위기는 평범한 것을 홀시하고 기이하고 격렬한 것을 숭상하였기 때문에 나라의 제도가 표창한 것, 志乘에 기록된 것, 그리고 민간에서 칭송되고 세속에서 놀란 것 등은 모두 매우 기이하고 고통스러운 행위들을 귀하게 여겼다.”³⁹⁾라는 기록이 보인다. 당시 순결과 절개에 대한 문인들의 집착 때문에 烈女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수집되고 문학적으로 재구성되면서 그것이 여성들을 억압하는 잣대가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정서 속에서 이미 고통에 무감각해진 劉氏는 여성들에게 죽음이 아니면 최대한 고통스럽고 치열하게 ‘孝’와 ‘烈’을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王相이라는 남성 문인의 암묵적인 시선 하에 조율되고 있었다.

3.3. 규방 안에서 ‘忠’을 실현하다

明末의 遺民들이 楚辭를 읽고 注解하며 屈原에 대한 역대 평가들을 종합하는

37) 《女範捷錄·孝行篇》 箋註：橫割不得，直割始得，烹以進祖母。

38) 《女範捷錄·孝行篇》：是皆感天地動，神明著孝烈於一時，播芳名於千載者也，可不勉歟！

39) 《明史·列傳》 권189：蓋挽近之情，忽庸行而尚奇激，國制所褒，志乘所錄，與夫裏巷所稱道，流俗所震駭，胥以至奇至苦爲難能，而文人墨客往往借倣儻非常之行，以發其偉麗激越跌宕可喜之思，故其傳尤遠，而其事尤著。

데 몰두하였던 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다. 南宋 朱熹가 《楚辭集注》에서 ‘愛國’이라는 표현으로 屈原을 평가하였던 것처럼, 錢澄之, 陸時雍, 周拱辰, 王夫之 등은 楚辭를 재평가하며 주석을 달았고, 傅山의 <宿水>, 萬壽祺의 <趙書屋>, 錢澄之의 <夜坐> 등 明代 遺民의 시 창작에 屈原은 깊은 영감을 주었다. 屈原과 楚辭에 대한 몰두는 바로 遺民들이 새로운 왕조에 대한 내면의 불만과 반항을 나타내고, 忠君과 愛國의 정서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40) 이러한 노력은 어느새 규방의 안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忠’은 ‘남성’, ‘烈’은 ‘여성’이라는 틀이 무너지면서 ‘孝’와 ‘烈’에 머물고 있던 여성교육의 범주는 ‘孝’, ‘烈’, ‘忠’으로 확장되기에 이른다.41) 그러한 변화의 징후를 우리는 《女範捷錄》에서 찾아볼 수 있다.

劉氏는 <孝行篇>, <貞烈篇>에 이어 <忠義篇>이라는 편을 따로 설정하였는데, <忠義篇>은 《女範捷錄》이 기존의 여성교육서와 구분되는 가장 큰 특징이자, 王相이 《女範捷錄》을 굳이 《女四書》에 포함시켰던 이유였을 터이다. 劉氏는 그 서두에서 “옛말에 이르기를 온 나라의 땅에 임금의 신하가 아닌 자가 없다고 하였는데 어찌 규방에도 충의가 없겠는가!”42)라고 밝혔다. ‘임금’과 ‘부모’, ‘忠’과 ‘孝’를 유비관계로 보고, 부모에게 ‘孝’를 다하듯 여성도 임금과 나라에 대해 ‘忠’을 실천할 수 있는 대상임을 강조하였다.

劉氏는 여성이 ‘忠’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가장 먼저 ‘전쟁 상황’에서 찾았다. 여성이 직접적으로 전쟁에 참여하여 나라를 위해 싸우고 공을 세우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기에 劉氏는 여성이 남편이나 아들에게 전쟁에 참여하

40) 沈雲, <談明遺民對屈原及《楚辭》的接受>, 《語文學刊》 2008年 第5期, 23쪽.

41) 이러한 현상은 조선시대 임진왜란 이후의 여성교육에 ‘忠’의 문제가 대두되었던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정지영은 광해군 9년(1617년)에 왕명으로 편찬된 《東國新續三綱行實圖》 중 <忠臣圖>에서 세 명의 여성 노비가 등장하고, 논개가 義妓로 인정되었던 과정은 여성과 ‘忠’의 실천이 행동의 범위와 신분의 경계를 넘어서 확장되었음을 보여주는 예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17세기 조선의 여성교육에서 ‘忠’의 문제가 대두되었던 것은 《女範捷錄》의 전파와 함께 동아시아적 차원에서 ‘忠義’의 주제가 여성에게까지 확장된 결과로 보았다. 이에 대한 논의는 정지영, <임진왜란 이후의 여성교육과 새로운 ‘충’의 등장>(《국학연구》 제18집, 2011)을 참조.

42) 《女範捷錄·忠義篇》: 古云, 率土莫非王臣, 豈謂閨中遂無忠義!

도록 독려하는 행위가 '忠'을 실천하는 시작임을 밝혔다. <忠義篇>에는 아들과 손자에게 전쟁에 나가라고 격려하였던 쑤나라 虞潭의 어머니 孫氏, 사재를 털어 성을 쌓아 적군을 막은 朱序의 처, 宋나라 병사들이 후퇴하려 하자 金山에 올라 북을 두드리며 병사들에게 사기를 북돋아주었던 梁夫人 등이 칭송되고 있다.

<忠義篇>이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이유는 아마도 '忠'에 '義'라는 덕목이 결합된 데 있을 것이다. 이는 劉氏가 여성이 다양한 방법으로 '忠'을 실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기 위해 고심한 흔적이다. 즉 여성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나라를 위해 직접적으로 공을 세우지 않아도 '義'를 지킴으로써 '忠'을 다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인데, 이 때 '義'는 우선적으로 '임금'과 '나라'를 향한 절개를 가리킨다. 이제 '忠義'라는 포괄적 범주 내에서 여성은 '忠'을 실천하는 주체로 서술되었고, 그들의 의로운 행동은 '忠'이라는 미명 하에 칭송되기 시작하였다. <忠義篇>에는 나라가 망하자 殉節한 여성의 사례가 모범으로 제시되고 있다.

“池州가 포위되자 趙昂發의 부부는 함께 절개를 드러내었다.”⁴³⁾

“謝夫人은 기꺼이 포로로 잡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였다.”⁴⁴⁾

宋나라 趙昂發의 처 雍氏는 元나라 군대에게 포위되자 남편과 함께 자살하였고, 역시 宋나라 謝枋得의 처 李氏는 謝枋得이 의병을 일으켰으나 실패해서 죽은 것을 알고 따라 죽었다. 모두 '남편에 대한 절개'와 '나라에 대한 절개'를 동시에 실천한 자들로 元나라 군대에게 宋나라가 망한 상황에서 殉節한 이들의 행동은 明나라의 몰락과 淸나라 군대의 침입이라는 상황에서 여성들이 행동해야 할 모범을 비유적으로 제시한 것이었다.

<忠義篇>에는 더 나아가 남성보다 더욱 맹렬하게 나라에 대한 절개를 지킨 여성들이 칭송되고 있다. 그들은 적군에게 항복하고 돌아온 남편의 얼굴에

43) 《女範捷錄·忠義篇》: 池州被圍, 趙昂發節義成雙.

44) 《女範捷錄·忠義篇》: 謝夫人甘俘虜, 以救民生.

토약질을 하기도 하고, 전쟁에 패하여 죽지 않은 남편을 수치스럽게 여기며 자살하는 맹렬함을 보인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칭송 이면에는 작자의 다른 의도가 있다. 바로 비도덕적이고 변절한 남성에 대한 비판과 풍자였다.⁴⁵⁾

“江油가 魏나라에게 투항하자 馬邈의 처 李氏는 남편과 함께 살 수 없다고 하였고, 蓋國이 오랑캐에게 함락 당하자 丘子の 처는 그 남편이 죽지 않은 것을 수치스럽게 여겼다.”⁴⁶⁾

李氏는 투항하고 돌아온 馬邈의 얼굴에 토약질을 하고 수치스러워하며 목을 매달아 죽었고, 丘子の 처 역시 남편을 수치스러워하며 자살하였다. 이 중 丘子の 처의 이야기는 원래 《列女傳·節義傳》에 수록되어있다. 劉向이 丘子の 처의 죽음을 그쳐 ‘節義’의 범주로 보았다면, 劉氏는 ‘節義’를 지키고자 한 대상이 궁극적으로 ‘나라’였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를 ‘忠義’로 새롭게 해석하였다. 劉向의 시대에 여성은 ‘忠’을 실천할 수 있는 대상으로 인식되지 못하였지만, 劉氏의 시대에 여성은 ‘忠’의 주체로 정립되어가고 있었다.

<忠義篇>은 여성이 ‘忠’을 실천할 수 있는 범주를 확대시키면서 동시에 궁녀, 노비, 기녀 등의 충성을 칭송함으로써 사회의 하층 여성들도 ‘忠’을 실천할 수 있는 주체로 끌어올리려고 노력하였다. 먼저 궁녀 嬖娥와 朱貴兒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이 전해진다.

齊나라 桓公의 시체에서 벌레가 생겨 문 밖까지 나오자 嬖娥는 담을 넘어 임금을 따라 죽었고, 宇文化及이 시퍼런 칼날로 궁을 침략하자 朱貴兒는 목숨을 버리며 역적을 꾸짖었다.⁴⁷⁾

45) 明代 遺民들은 ‘節’과 ‘忠’ 사이의 유비 관계에 주목하여 특히 江南에서 節烈한 여성들을 적극적으로 칭송함으로써 남성들의 변절 행위를 풍자하고 비판하는 계기로 삼았다. 江南 여성의 殉節에 대한 明末 遺民들의 인식은 沈雪鏗, <節與忠: 明遺民對明清之際江南女性殉節的書寫> (《溫州大學學報》 第22卷 第2期, 2009年 3月) 참조.

46) 《女範捷錄·忠義篇》: 江油降魏, 妻不與夫同生, 蓋國淪戎, 婦恥其夫不死.

47) 《女範捷錄·忠義篇》: 齊桓尸蟲出戶, 嬖娥踰垣以殉君, 宇文白刃犯宮, 貴兒捐生以罵賊.

婁娥는 왕자들의 권력다툼으로 桓公의 시체가 오래도록 내버려져 있는 것을 참지 못하여 桓公 옆에서 죽었고, 朱貴兒는 隋나라 煬帝를 감싸 안고 반란을 일으킨 宇文化及을 꾸짖다가 죽임을 당하였다. 여기에서 한낱 힘없는 궁녀의 의로운 죽음은 遺民들에게 특별한 의미로 해석된다. 遺民들은 明나라가 몰락하는 데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궁궐의 부패를 꼽고 있었는데,⁴⁸⁾ 이 때문에 婁娥와 朱貴兒에 대한 칭송은 바로 궁궐 내 부패의 온상이었던 환관 魏忠賢, 明末 熹宗의 유모였던 客氏 등에 대한 비판, 풍자를 내포하고 있다.

<忠義篇>에서는 노비와 기녀의 충성에 대한 칭송도 찾아볼 수 있다. 劉氏는 이를 통해 가장 낮은 계급에 속하는 노비와 기녀도 '忠'을 실천할 수 있는 대상임을 환기시키면서 모든 여성이 '忠'의 주체로 나서야함을 강조하였다.

孫姬는 노비였으나 물가를 기어 다니며 忠臣의 혈육을 보살폈고, 毛惜惜은 기녀였으나 칼과 도끼를 기꺼이 받아들이며 반역한 군사를 위해 노래 부르는 것을 수 치스리워하였다.⁴⁹⁾

劉氏는 이 두 여성을 칭송하면서 각각 노비와 기녀가 '忠'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상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 孫姬의 경우, 나라나 임금에 대한 직접적인 절개는 아니지만 그가 절개를 지킨 대상이 明나라의 '忠臣'이었고, 劉氏는 그 忠臣의 혈육을 보살폈다는 점에서 孫姬를 '忠'의 모델로 제시하였다. 또한 기녀가 노래를 부르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것은 기녀의 본문에서 벗어난 행동이지만 그럼에도 毛惜惜은 적 앞에서 노래 부르지 않겠다고 저항하다가 죽임을 당하였다. 일반적으로 유혹에 약하고 쉽게 흔들리는 존재로 인식되는 기녀를 '義妓'로 칭송함으로써 劉氏는 모든 여성들이 굳건하고 장렬하게 '忠'을 실천하기를 강조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여성의 忠節에 대한 칭송은 明末清初에 처음 나타난 현상은 아

48) 姜勝利, <明遺民與清初明史學>, 《安徽大學學報》 第27卷 第1期, 2003年 1月, 10~11쪽.

49) 《女範捷錄·忠義篇》: 孫姬婢也, 匍伏湖濱, 以保忠臣血胤, 毛惜妓也, 身甘刀斧, 恥爲叛師謳歌.

니다. 北宋의 몰락과 南宋의 불안정한 정치적 상황에서 남성 문인들의 불안은 여성의 忠節에 대한 집착으로 이어졌고, 여성의 도덕성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비도덕적인 남성을 자극하고 비판하려는 목적에서 여성의 忠節에 대한 칭송이 성행하였다.⁵⁰⁾ 마찬가지로 《女範捷錄》에서 여성의 忠義에 대한 칭송은 변절한 남성을 비판하고 풍자하는 작용도 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女範捷錄》은 여성 작자인 劉氏가 그 대상을 여성으로 삼고, 그 가르침이 여성들이 행동하고 판단하는 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王相이 간과한, 혹은 알고도 포기한 '태교' 대신 '忠義'를 강조함으로써 《女範捷錄》은 《女四書》라는 권위를 얻었지만, 남성의 시각에 의해 만들어진 혹독하고 잔인한 도덕적 잣대에 희생당하는 것은 고스란히 여성들의 몫이었다.

4. 나오며

《女四書》 중 하나인 《女範捷錄》은 여성 교육서로서 알려져 있지만 그 내용은 어느 傳記나 소설보다 더 극적이고 흥미진진하다. 위급한 상황에 닥쳐 연약한 여성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주저 없이 신체를 傷害하는 잔인하고 폭력적인 이야기들은 때로 독자들을 자극하여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이야기들은 그 극적인 분위기만큼이나 여성들을 교육시키는 데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다. 《女範捷錄》이 의도하였던 것은 유가적 도리나 예의에 대한 원론적인 설명보다 과장된 표현과 충격적인 장면을 연출함으로써 독자들의 감성을 자극하고, 희생된 여성들을 지속적으로 칭송하여 무의식적으로 이들을 모방하고 싶은 충동을 불러일으키는 데 있었다.

《女範捷錄》은 당시 사람들의 과잉의 감정, 강박증, 치열한 욕망 등 인간

50) Beverly Bossler, *Faithful Wives and Heroic Maidens: Politics, Virtue, and Gender in Song China*, 鄧小南 主編, 《唐宋女性與社會》, 上海: 上海辭書出版社, 2003, 756~757쪽.

내면의 밑바닥을 여과 없이 보이고 있기에 여성 교육서이기 이전에 明末淸初의 시대적 정서를 그대로 담고 있는 문학작품으로 보아도 손색이 없다. 이 때문에 《女範捷錄》은 충분히 매력적이고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텍스트이다. 또한 明末淸初라는 격동기에 규방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분위기를 엿볼 수 있게 해주기에 《女範捷錄》은 전통 시기 여성문화와 여성문학을 더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난해하고 압축된 원문 때문인지 《女範捷錄》은 《女四書》 중에서도 가장 주목을 덜 받았고, 오늘날 국내외 학계에서도 《女範捷錄》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전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女範捷錄》은 여성교육과 비교문화 등의 연구에서도 주목해야할 텍스트이다. 《女範捷錄》은 동아시아 여성교육에서 처음으로 '忠'의 문제를 거론함으로써 여성교육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남성에 의한 강요가 아니라 여성이 직접 '忠'의 실천을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심장하다. 뿐만 아니라 《女範捷錄》은 전통 시기 한중일 여성문화의 비교연구에도 많은 영감을 줄 수 있다. 특히 17세기 중국과 조선의 여성교육에서 '忠'에 대한 담론이 유사한 경위로 일어난 것이나 《女範捷錄》이 일본으로 전해지면서 鄭氏의 《女孝經》으로 대체된 것 등은 한중일 삼국이 동아시아 문화로서 비슷한 정서를 공유하면서도 각기 고유한 문화적 색깔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러한 연구들은 향후 연구 과제로 남겨 두기로 한다.

< 參考文獻 >

劉氏, 《女範捷錄》, 會文堂書局, 1916.

王相 箋註, 《女四書》, 成都: 中國華僑出版社, 2011.

_____, 《女四書》, 이숙인 역주, 여이연, 2003.

정지영, <임진왜란 이후의 여성교육과 새로운 '忠'의 등장—《동국신속삼강행실도》를

중심으로>, 《국학연구》 제18집, 2011.

이혜순, <열녀상의 전통과 변모—《삼강행실도》에서 조선 후기 〈열녀전〉까지>, 《진단학보》 85, 1998.

김훈식, <15세기 韓·中 《內訓》의 여성윤리>, 《역사와 경계》 79, 2011.

박찬기, <《女四書芸文圖繪》의 번각과 《여훈물》 연구—《여사서》 수용에 관한 기초적 연구(I)>, 《일본어문학》 제39집, 2009.

김종미, <窈窕淑女, 君子의 이름으로 부르는 여인>, 《동아시아 여성의 기원—《列女傳》에 대한 여성학적 탐구》, 이화중국여성문학연구회 편, 이화여대출판부, 2002.

余慧婷, <論女學教材中的孝道>, 《中國史研究》 第70輯, 2011.

馬將偉, <歷史隱喻中的生命探求—一生死之議與明遺民的生存抉擇>, 《海南大學學報》 第28卷 第2期, 2010年 4月.

沈雪瑩, <死節: 明清之際江南女性的抉擇及其原因分析>, 《金陵科技學院學報》 第22卷 第2期, 2008年 6月.

沈雲, <談明遺民對屈原及《楚辭》的接受>, 《語文學刊》 2008年 第5期.

姜勝利, <明遺民與清初明史學>, 《安徽大學學報》 第27卷 第1期, 2003年 1月.

Beverly Bossler, *Faithful Wives and Heroic Maidens: Politics, Virtue, and Gender in Song China*, 鄧小南 主編, 《唐宋女性與社會》, 上海: 上海辭書出版社, 2003.

< 中文提要 >

《女誠》、《女論語》、《內訓》、《女範捷錄》의 總稱, 《女四書》在明末清初被學者王相匯編合刊。儘管有些學者認為《女四書》並沒有超越中國古代其他女訓著作, 仍然是以封建倫理道德爲中心, 但由於是由女性親自撰著, 在一定程度上反映了古代婦女的思想意識和看待社會的獨特視覺。《女範捷錄》是明末清初儒者王相之母劉氏所作。全書分十一篇, 即<統論篇>、<后德篇>、<母儀篇>、<孝行篇>、<貞烈篇>、<忠義篇>、<慈愛篇>、<秉禮篇>、<智慧篇>、<勤儉篇>、<才德篇>。該書以儒學的綱常之理作爲“正內之儀”, 除一般地闡述女教原理外, 特別大量地引述了歷代貞女、孝女、賢妻、良母的封建典範, 也列舉了一些烈女和孝女、才女人物。封建禮教的一些頑固、保守的觀念, 集大成於《女範捷錄》, 並且竭力宣揚貞節觀, 封建禮教發展到了一個新的“高度”。此外, 還有不少人“著書立說”, 研究

如何端肅婦道，壓迫與束縛女子。而《女範捷錄》影射了亡國之際對於“節”與“忠”的思考，我們可以通過《女範捷錄》了解明末清初女性的強迫心理和時代思惟。

關鍵詞：《女訓》、《女論語》、《內訓》、《女範捷錄》、《女四書》、明末清初、遺民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2. 3. 31.	2012. 5. 3.	2012. 5. 14.	2012. 5. 21.	2012. 5. 31.